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9월

선교편지 제 15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필리핀의 학교들이 2년 6개월 동안 굳게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마침내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과 학습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전국 46% 정도의 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여 11월 2일 까지 필리핀 내의 모든 학교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학교를 폐쇄한 국가 중의 하나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여느 나라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마닐라와 같은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온라인 수업이 아닌 Module 학습이라 불리는 '학습지' 형태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즉, 학년과 반별로 학생의 부모들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따라 학교에 가서 '학습지'를 받아와 공부하는 형태였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학습지로 공부하고, 숙제를 하여, 부모가 학교에 제출하고, 새로운 학습지를 또 받아오는 형태의 공부를 지난 2년 반 동안 한 것입니다. 대학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학생 본인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학교에 가서 학습지를 받아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형태로, 대학 4년 중에 반 이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전공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세계은행 (World Bank)의 지난해 보고서에 의하면 필리핀의 10세 이하 어린이 열 명 중에서 아홉 명은 간단한 내용의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빈곤' 상태에 있고,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79개국 중 독해 능력과 과학, 수학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특별한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간단한 계산을 해야 하는 실생활에서나, 나이에 맞는 평범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매우 쉽게 그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문맹률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이곳은 장기간 대면 수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교육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면 수업을 시작하려 하니,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기존의 학교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약 4,000 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 내의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교실이 있어야만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과밀 학급으로 인하여 2 교대 수업을 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3 교대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적인 공부의 부족도 매우 우려가 되지만, 학교에서 단체 생활 가운데 배워야 할 공동체 윤리, 배려, 질서 등과 같은 도덕적인 면을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족의 결과는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백년대계(百年大計) 라고 하는 '교육'이 심하게 손상된 작금의 사태를 필리핀은 과연 어떻게 풀어 나아갈 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지난 2년 6개월동안 대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는 갈 수 없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에는 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교회는 학생들이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매우 바람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찬양 연습을 하고, 주중 성경 공부에도 참여 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학원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학교측에서 교회에 먼저 연락을 하여 그전처럼 채플 시간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호 4:6) 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모든 교육 여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을 밝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5)**





2022년 8월 마지막 주일,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던 생소한 아팔라야 지역에, 하나님께서 학원 사역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전 이 지역에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신 지난 일들을 기억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2)**

아팔라야 지역은 디고스의 26개 행정 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주거 인구가 많은 곳으로 바닷가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사는 주민들의 형편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중요한 가재 도구를 챙겨서,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대나무로 엮은 수상 가옥에 살고 있는 교우들의 집을 방문할 때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닷물이 아래에 넘실거리는데, 수상 가옥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는 제 체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이 심하게 휘어져 버립니다. 심방을 하는 동안에도 교우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 보이는 아슬아슬한 환경에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비겁한 내가 과연 선교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열악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2년 전에 기적처럼 세워 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모일수 없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잃어버린 절박한 주의 백성들을 이 교회로 보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여, 마치 꾸어 온 보릿자루처럼 시종일관 묵묵히 앉아만 있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얼굴 빛이 달라져,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 주신 교회의 의미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생명의 구조선이 아닌 호화로운 유람선이 되어 편리함과 부요함을 즐기고 자랑하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 버린 가운데,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꿈을 품고 내 가족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복음화 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와 풍성하게 채워 주심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동역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